

북한 소학교 2학년 국어 교과서에 나타난 언어 규범 교육 내용 분석 — 남북 비교를 중심으로

정경화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교육과 박사수료(제1저자)

권순희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교신저자)

- I. 들어가기
- II. 2014 북한 소학교 2학년 교과서 문법 영역의 학습 내용 분석
- III. 북한 소학교 2학년 국어 교과서의 언어 규범 내용 및 특징
- IV. 언어 규범 교육 내용 범위와 학습 활동에 대한 특징
- V. 나오기

I. 들어가기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통일을 대비하고 북한의 실제적인 국어교육을 이해하고자 2013년 개정 북한 교육강령에 따라 개발된 2014 북한 소학교 2학년 국어 교과서에 나타난 언어 규범 교육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에서는 소학교 저학년 때부터 언어 규범 교육을 강조한다. 2013년 소학교 교육강령에 의하면 “우리 말과 글에 대한 언어생활규범(발음법, 맞춤법, 띄어쓰기규범, 문장부호법, 글씨쓰기규범)지식과 언어표현지식, 문장, 토지식 및 글형태들에 대한 지식을 알고 언어생활에 올바르게 구현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교수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통일 후 언어 규범은 언어의 동질성 회복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현행 교과서를 통해 남북한의 언어 규범 교육의 실태를 정밀하고 객관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북한에서 어문 규범 교육은 김일성 일가 및 당의 주체사상 습득과 더불어 소양 교육을 위한 기초교육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통일 후 북한의 국어교육은 남한에 편입되거나 남한의 언어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남북한 통합을 위한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에 북한의 국어교육의 실재를 살펴봐야 한다. 북한의 국어교육을 이해하려면 북한의 국어과 교육과정과 교과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북한 자료의 접근이 제한적이라 교육과정과 교과서 연구가 많지 않다. 하지만 개정된 북한의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대해 최근 지속적인 연구가 나오고 있어 다행이다.

북한의 2013 개정 국어 교육과정을 통해 교과서가 새롭게 편찬되면서 이를 분석한 연구(강보선, 2018; 권순희, 2018; 권순희·주재우·김윤정·변경가·정경화, 2018; 주재우, 2018; 변경가·권순희, 2019)들이 등장하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를 분석 대상으로 삼은 연구로는 남북한의 초등학교와 소학교 교과서를 비교 분석(이동배, 2009; 박금숙, 2016; 김서형, 2018; 진용성·차해나, 2018)한 연구와 김일성 일가에 대한 숭배, 이념적 대립으로 북한 소학교 교과서에 반영되어 나타난 정치사상 및 언어문화를 살펴본 연구(이정원, 2007; 강보선, 2013)가 일부 있다. 남북한 언어 규범에 관한 연구에는 남북한 어문 규범 및 정책의 동질성 회복에 초점을 둔 연구(홍경화, 2014; 이관규, 2016)나 남북한 맞춤법을 비교·분석하여 교수 학습 내용을 구안(박종관, 2016)한 실 천적이고 실행적인 연구가 있다.

지금까지 북한의 교육과정과 교과서 연구는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구성 체제와 영역별 미시적인 내용 분석에 주목하여 북한의 국어교육을 이해하는 데 그 역할을 하였다.¹⁾ 본고에서는 통일 시대 대비를 위해 지속적인 북한의 국어교육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북한의 언어 규범 교육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강보선(2017: 182)은 어휘 교육 연구에서 단어의 발음 및 표기, 단어와 관련된 문법 지식이 포함되어야 하나 범위가 넓어지므로 이와 관련된 내용을 별도로 다루어야 하며 남북한 통합 발음교육, 맞춤법교육, 문법교육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함을 언급한 바 있다.

2. 연구 분석 범위

본 연구는 국내 입수된 2014 북한 소학교 2학년 국어 교과서의 기초원리지식교육²⁾ 중 어문규범에 해당하는 발음법 및 맞춤법, 띄어쓰기, 문장 부호에 대한 교육 내용의 범위와 학습 활동을 중심으로 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필요시에는 남북한 2학년 국어 교과서를 비교 검토할 것이다. 다만 남북한의 교육과정에 제시한 성취기준 및 교과서에서 다루는 교육 내용의 학년 차이로 문장 부호 부분은 남한의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를 비교하겠다. 남북한이 동일한 학년에서 다루는 교육 내용이 다른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교과서에 나타난 문법에 대한 구성 및 내용 양상을 살펴보는 것은 향후 남북한 통합 교육과정 및 교과서 구상에 시사점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2014 북한 소학교 2학년 국어의 문법 영역을 분석 대상으로 삼은 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 근거한다.

먼저, 1학년 글자교육 이후 2학년 때 처음으로 문법 내용을 학습하는 데다가 저학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양의 문법 내용을 담고 있고 북한에서는 언어 규범에 대한 교육을 소학교 저학년 단계부터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어 언어 교육의 정확성을 강조하는 북한의 언어 교육관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남북한의 언어 규범은 기본적인 원리는 같으나 그 설명방식이나 문법 용어의 차이로 통일 후 혼란의 여지가 있다. 무엇보다 남한의 경우 언어 규범 교육이 축소되어 교육적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고 북한 이탈 주민 및 탈북 학생들은 발음법을 포함한 언어 규범의 차이로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을 하는 데 방해를 받고 있다. 따라서 통일 후 남북한의 실제적 의사소통의 기반이 되는 언어 규범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을 깨닫고 시급성을 환기시킬 필

2) 남한의 '문법'이 북한의 '기초원리지식교육'에 해당한다. 남북 비교를 할 경우에만 용어의 일관성을 위해 이하 내용부터는 '문법'이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기술하였으며 남한과 북한을 따로 논할 경우에는 '문법', '기초원리지식교육'이라는 용어를 각각 사용하였다.

요가 있다.

맞춤법 교육 내용은 ‘삭갈리기 쉬운 말’³⁾의 맞춤법 교육을 중심으로 다룰 것이다. ‘삭갈리기 쉬운 말’ 외에 다른 맞춤법 내용도 고려해 볼 만하지만 남북한의 교과서를 일대일 대응하기 어려운 점, 기존 북한의 어휘 및 맞춤법 교육에서 다루지 않은 점을 고려하였다. 무엇보다 북한의 ‘삭갈리기 쉬운 말’이 남한의 맞춤법 교육에서 다루는 ‘소리가 비슷한 낱말과 자주 혼동하는 낱말’과 ‘소리와 표기가 다른 낱말’에 해당하고 무엇보다 북한의 언어 규범 교육에서 ‘삭갈리기 쉬운 말의 맞춤법’을 학년별로 지속적으로 학습하는데 있다.

II. 2014 북한 소학교 2학년 교과서 문법 영역의 학습 내용 분석

북한 소학교 2학년 국어 교과서의 영역별 편성 체제를 살펴보면 1학기에 15단원, 2학기에 13단원으로 학기별로 한 권씩 구성되어 있고 총 28단원이다. 2학년 총 차시는 238시간으로 영역 중 읽기가 12단원, 120~121시간으로 가장 많이 편성되어 있다. 다음은 연구자가 소학교 2학년 국어 교과서에 구성된 영역별 시수를 정리한 것이다.

3) 조선말대사전(2006)에 의하면 ‘삭갈리다’와 ‘섞갈리다’는 북한에서 동일어로 취급되고 있다. 교육강령에서는 ‘삭갈리기 쉬운 단어’, ‘삭갈리기 쉬운 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북한 국어교과서에서는 ‘섞갈리기 쉬운 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표 1〉 북한 소학교 2학년 국어 교과서 영역별 시수

학년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복습	총 시수
	듣기	말하기		글씨쓰기	글짓기		
2	2단원 (17시간)	7단원 (55시간)	12단원 (120시간)	2단원 (10시간)	5단원 (32시간)	2단원 (4시간)	238

북한의 영역별 구성을 보면 읽기를 12단원(전체 28단원)으로 구성하여 비중 있게 다루고, 말하기, 글짓기, 듣기/글씨쓰기의 순으로 영역을 배치하고 있다. 북한 소학교 2학년의 문법 주요 내용과 영역별 편성 체제는 아래와 같다.

〈표 2〉 소학교 2학년 국어 교과서에 나타난 문법 영역의 주요 학습 내용

단원	영역	단원명(제목)	문법 영역의 학습 내용	시간 ⁴⁾
1	읽기	공화국기발	맞춤법	10
			섞갈리기 쉬운 말(곳-곤, 가르치다-가르키다)	
2	말하기	소개말은 어떻게 할까요		8
3	읽기	귀중한 공부시간	이어내기발음	10
			맞춤법	
			섞갈리기 쉬운 말(받치다-바치다-부러지다-부서지다)	
4	말하기	인사말을 잘하자요	인사말 (웃사람, 동무와 동생에게 하는 인사말)	8
			속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5	글짓기	문장을 지어보자요	문장(개념 및 구조, 문장 짓기, 문장 고쳐보기)	5
6	읽기	놀고먹던 꿀꿀이	겹모음 《ㄱㅔ》	10
			끊기 ⁵⁾	
			맞춤법(ㄷ불규칙)	
			섞갈리기 쉬운 말(거름-결음, 마시다-먹다)	

4) 소학교 교과서의 시간은 각 단원의 소단원 수이며 이것이 곧 차시에 해당한다.

5) 남한의 ‘띄어 읽기’에 해당한다.

7	글씨 쓰기	곱게 쓰자요	바르게 쓴 글씨	5
			세운글자와 눅힌글자, 받침글자 써보기	
8	읽기	만경대	소리빠지기발음	10
			맞춤법	
			섞갈리기 쉬운 말(반드사-반듯이, 꾸준하다-부지런하다)	
			합친말	
9	말하기	말을 정확히 전달하자요	시간을 나타내는 말(순간, 잠깐, 동안, 종일)	7
10	글짓기	생각하며 지어보자요	두 개 문장짓기	5
			문장 부호(《 》, ?)	
11	듣기	청개구리이야기	가족관계를 나타내는 말	9
12	읽기	아름다운 우리 나라	된소리되기발음	10
			맞춤법	
			섞갈리기 쉬운 말(들-벌, 너머-넘어)	
13	읽기	맹매가 따온 수박	맞춤법	10
			섞갈리기 쉬운 말(굵다-두껍다, 가늘다-얇다)	
			셈을 셀 때 쓰이는 말/	
14	말하기	말을 다정하게 주고받아요		7
15	읽기	들꽃소녀	맞춤법(비로소-비로써-비로써)	10
			섞갈리기 쉬운 말(비끼다-비키다, 생각-궁리)	
			소리와 모양을 본떠말	
			수를 나타내는 말의 띄어쓰기	
		배운 것을 다져보자요	맞춤법	2
16	글짓기	글을 옮겨지어보자요	띄어쓰기	6
			옳게 가려쓰기(‘세요’와 ‘시오’)	
17	읽기	항복의 손 부들부들	섞갈리기 쉬운 말(크다-많다, 적다-적다)	9
			맞춤법 종결어미 ‘-르까?’ (용서할까, 살려줄까)	
18	글씨 쓰기	글씨를 바르게 쓰자요	규범글씨(세운글자, 눅힌글자)	5
			수자 ^㉔	
			문장 부호(《 》, (), ? !)	

19	글짓기	그림을 글로 만들어보지요		8
20	말하기	전화를 걸어보지요		7
21	읽기	훈이의 도화공작학습장	맞춤법 《지, 치》소리되기발음 쉬갈리기 쉬운 말(자주-자꾸, 환하다-원하다)	11
22	말하기	도움을 청해보지요	고마움을 나타내는 말, 도움을 청하는 말	8
23	읽기	미제승냥이	맞춤법(받침《ㄷ, ㅌ, ㅈ, ㅊ》이 붙는 단어) 쉬갈리기 쉬운 말 (사정없이-용서없이, 떠서하다-떠뜻하다) 속담(승냥이가 양으로 될수 없다 등)	10
24	글짓기	일기는 어떤 글일까요	식생활을 나타내는 말(음식이름, 음식맛)	8
25	듣기	새는 물을 어떻게 먹었을까요	잠을 나타내는 말 (도적잠, 통잠, 토끼잠, 발편잠)	8
26	읽기	혁명군놀이	소리떨기발음 맞춤법 (모음 《새, 채, ㅏ, ㅑ》가 있는 단어 《려》와 《로》) 쉬갈리기 쉬운 말(노래-음악, 폭탄-포탄) 토지식 《이》와 《의》, 《운》과 《은》 물음을 나타내는 말(어디, 누구, 언제, 무엇)	10
27	읽기	마음의 흉자리	거센소리되기발음 쉬갈리기 쉬운 말(숙제-과제, 마치다-맞히다) 소리는 같지만 뜻이 다른 말(차다, 치다, 들다) 맞춤법 모음 《ㅏ》, 《ㅑ》	10
28	말하기	자신있게 말할수 있어요		10
		배운 것을 다져보지요	말하기/글쓰기	2
		계		238

6) 남한의 '숫자'를 의미하며 숫자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빈칸에 적당한 숫자의 크기를 배운다.

북한의 소학교 2학년의 학습 내용을 살펴보면 문법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영역에서 모두 다루고 있다. 언어 규범에 대한 내용은 듣기, 말하기를 제외한 타 영역에서 다루고 있다. 발음법⁷⁾과 맞춤법, 쉬갈리기 쉬운 말은 주로 읽기 영역에서 다루고 있고 맞춤법과 쉬갈리기 쉬운 말은 매 단원에 한 차시씩 구성되어 있다. 띄어쓰기와 문장 부호는 쓰기 교육에서, 어휘 및 속담은 읽기뿐만 아니라 글짓기, 말하기 및 듣기 영역에서도 일부 다루고 있다.

맞춤법 교육은 각 단원의 본문에서 추출된 단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대부분 발음과 표기가 달라 혼동이 되는 단어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주로 본문에서 표기와 발음이 다른 단어를 학습하되 문법적 지식(ㄷ불규칙(6과))이나 의미 기능적 이해(목적의 《러》와 장소 《로》(26과))가 요구되는 내용도 있다. 《러》는 ‘《가다》와 《오다》라는 단어와 어울린다’, ‘《로》는 장소를 나타낸다’는 설명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앞에 오는 명사의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 조사 《와, 과》와 《을, 를》의 쓰임도 한 차시 다루고 있다. 그밖에 맞춤법 교육 내용으로 받침 《ㄷ, ㅌ, ㅊ, ㅌ》이 붙는 단어(23과), 모음 《애, ㅐ, ㅑ, ㅓ》가 있는 단어(26과), 모음 《ㅛ》와 《ㅟ》(27과)와 같은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어휘 교육은 시간을 나타내는 말(순간, 잠간, 동안, 종일), 가족관계를 나타내는 말, 셈을 셀 때 쓰이는 말, 소리와 모양을 본딤말, 식생활을 나타내는 말(음식이름, 음식맛), 잠을 나타내는 말(도적잠, 통잠, 토끼잠, 발편잠), 물음을 나타내는 말(어디, 누구, 언제, 무엇)을 다루고 있다. 그밖에 남한의 합성어와 동음이의어에 해당하는 ‘합친말’, ‘소리는 같지만 뜻이 다른 말’(차다, 치다, 들다)을 학습하게 된다.

담화 교육은 말하기 교육에서 도움을 청하는 말, 고마움을 나타내는 말에 대한 표현을 다룬다. 그러나 높임을 나타낼 때, 이플 때 하는 말은 성취기 준에는 있으나 타 영역에서 별도로 구성하여 제시하지 않고 ‘웃사람에게 하

7) 남한에서 ‘음운의 변동’으로 기술하는 부분을 북한에서는 ‘발음법’이라고 한다(권재일, 2006: 247).

는 인사말/ 도움을 청하는 말/고마움을 나타내는 말'을 다룰 때 '대상(청자)'에 따른 표현 방법의 차이를 교과서에는 제시하여 높임에 대한 표현을 다루고 있다. 남한에는 없는 '토지식'은 어문규범에서 맞춤법 교육에서 토 《이》와 《의》, 《운》과 《은》의 쓰임에 대해 다룬다.

문장 교육은 2학년 교육강령에는 성취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교과서의 글짓기 영역에서 문장의 개념과 구성 및 구조를 다루고 있다(5과).

북한의 소학교 2학년 교과서의 언어 규범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북한의 문법 교육(언어 규범)은 정확한 언어 습득을 통해 올바른 언어 능력을 실천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맞춤법 교육의 경우 남북한이 교육 내용과 범위의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맞춤법 교육의 중요성을 전제하고 있다. 일부는 모국어 화자가 관습적으로 사용하여 오류의 가능성이 낮지만 북한에서는 맞춤법 교육 내용으로 다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맞춤법 교육은 남한의 학생뿐만 아니라 성인들에게도 오류가 나타나는데 언어 규범 교육 강화 측면에서 새겨볼 만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III. 북한 소학교 2학년 국어 교과서의 언어 규범 내용 및 특징

본 장에서는 남북한 초등학교 2학년 교과서에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언어 규범의 교육 내용 범위와 학습 활동을 중심으로 내용을 발음법, 맞춤법, 띄어쓰기, 문장 부호 순으로 살펴볼 것이다.

1. 남북한 초등학교 교과서의 발음 교육

1) 교육 내용 범위

남북한 표준어와 문화어 및 방언의 발음 차이는 의사소통 과정에서 가장 표면적으로 부딪히는 부분이다. 남북한의 음운 현상은 실제 내용의 차이는 크게 없지만 용어와 구분 및 일부 양상의 차이가 있다. 남한의 초등학교 2학년 국어 교과서에 제시된 음운 규칙은 연음 법칙과 된소리되기(경음화)에 대한 내용만 제시되어 있다. 이에 반해 북한의 소학교 국어 교과서에 제시된 음운의 변동은 이어내기와 끊어내기, 겹모음 ㄱ, 소리났기, ‘지, 치’로 되기, 소리빠지기, 소리끼우기,⁸⁾ 된소리되기, 거센소리되기로 모두 9개이다. 그중 2학년에 7개, 3학년에 2개로 발음법에 대한 내용은 저학년에 소개되고 있다. 다음은 2학년 교과서에 제시된 발음법 내용이다.

〈표 3〉 북한 소학교 2학년 교과서에 제시된 발음법

음운의 변동	북한 교과서 예시	남한의 용어
이어내기발음 ⁹⁾	꽃이[꼬치]	연음 법칙
겹모음 《ㄱ》 ¹⁰⁾	시계, 실례	이중모음의 단모음화

8) ‘소리끼우기’와 ‘끊어내기’ 발음법은 소학교 3학년에 다룬다. ‘소리끼우기’는 남한의 ‘음운의 첨가(사잇소리 현상과 반모음 첨가)’에 해당하는데 북한 교과서에는 ‘ㄴ소리끼우기’, ‘ㄷ소리끼우기’라 한다. ‘끊어내기’는 남한의 ‘절음법칙’에 해당한다. 초급중학교 1학년에서도 이어내기와 끊어내기 발음법을 학습하는데 발음 현상의 원리와 공통점과 차이점, 이 음운 현상이 적용되는 단어를 찾고 발음 현상의 원리(이유)를 설명하는 학습 활동을 한다.

9) 음영처리는 남북한 초등학교 2학년에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발음 교육 내용이다.

10) 겹모음 ‘ㄱ’은 남한의 경우, 한자음 초성 ‘ㄱ, ㄴ, ㅍ, ㅎ’ 다음 ‘ㄱ’을 원칙으로 발음하되 ‘ㄱ’은 허용하고 있으며 북한처럼 명시적으로 가르치지 않는다. 반면 북한은 ‘ㄱ, ㄴ, ㅎ’ 다음은 ‘ㄱ’이 원칙이다. 북한은 문화어발음법의 경우 《ㄱ, ㄴ, ㅎ》 뒤에 있는 《ㄱ》은 각각 [ㄱ]로 발음한다.

소리빠지기발음 ¹¹⁾	맑다, 밟다, 하지 않다, 물건을 잃다	탈락과 축약
된소리되기발음	학교, 알락달락, 글밭, 학생, 성적증	된소리되기(경음화)
《지, 치》소리되기발음 ¹²⁾	해돋이(해도지), 날날이(난나치)	구개음화
소리뒹기발음	훈련(훈련), 혁명(혁명),	소리의 동화(자음동화)
거센소리되기발음	밝히다, 첫째, 늦호박, 꽃향기	격음화

2) 학습 활동

남북한 초등학교 2학년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연음 법칙과 된소리되기에 대한 학습 활동을 살펴보겠다.

남한의 연음 법칙은 북한의 이어내기발음에 해당한다. 연음 법칙은 ‘구름이[구르미], 떨어진[떠러진]’과 같이 자음으로 끝나는 음절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조사, 어미, 접사)와 결합할 때¹³⁾ 앞 음절의 끝소리가 뒤에 오는 음절의 첫소리가 되는 음운 법칙을 말한다. 다만 ‘앉아서[안자서]’처럼 겹자음의 경우는 둘째 자음이 음절의 첫소리가 된다. 아래는 남한과 북한 교과서에 제시된 연음 법칙에 관한 내용이다.

- 11) 소리빠지기는 남한의 탈락에 해당한다. 북한 교과서에서 제시된 예시는, 겹받침(남한: 겹받침) 《리》과 《래》만 소개되어 있다. 두 받침이 모두 《ㄱ》앞에서 [ㄹ]로 발음하는 규정만 제시한 것이다. 겹받침 《리》은 남한의 발음 규정과 같으나 겹받침 《래》의 경우는 차이가 있다. 겹받침 《래》은 [ㄴ]받침을 원칙으로 하되 ‘맑다’가 ‘ㄱ’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발꼬], [발끼], [발께]와 같이 [ㄹ]로 발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기동(2011: 225)에 따르면 북한의 ‘줄이기’는 남한의 축약에 해당한다. 북한 소학교 2학년 교과서의 ‘소리빠지기발음’의 연습 활동에 ‘하지 않다’와 ‘물건을 잃다’가 제시되어 있는데 ‘않다’와 ‘잃다’는 남한의 ‘축약’에 해당하는 예이다.
- 12) 남한의 구개음화에 해당한다. 남한의 ‘ㄷ’ 뒤에 접미사 ‘히’가 결합되어 ‘티’를 이루는 것은 [치]로 발음한다)는 북한 발음법에는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교과서에는 관련 예문이 제시되어 있다. 예) 묻히다(무치다)
- 13) ‘집안[지반]’과 자음으로 끝나는 음절과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이어질 때 앞의 받침이 그대로 뒤의 음절의 첫소리로 가서 발음되기도 한다. ‘꽃 위에[꽃위에]→[꼬뒤에]’의 경우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하여 연음하게 된다.

**받침이 뒷말 첫소리가 되는 낱말
바르게 읽기**

국어 활동 57~58쪽

1 받침이 뒷말 첫소리가 되는 낱말을 어떻게 읽는지 알아봅시다.

(1) 낱말을 읽고 받침이 뒷말 첫소리가 되는 낱말에 ○표를
해 보세요.

구름보다

구름이

구름과

구름은

구름에

구름도

구름을

(2) 낱말의 소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세요.

구름 + 이

구름이

[구르미]

구름 + 은

구름은

[]

구름 + 에

구름에

[]

“구름을”에서 받침 ‘ㄹ’이 뒤에 오는 ‘으’를 만나면 뒷말 첫소리가 자연스럽게 바뀌어 [구르미]라고 소리가 나요.

2 파란색으로 쓴 낱말에 주의를 기울여 ‘육십 많은 개’를 읽어 봅시다.

육십 많은 개

구름이 없는 화창한 날이었어요. 어느 날, 육십 많은 개가
집으로 가는 길에 떨어진 고깃덩이를 보았어요. 개는 떨어진
고기를 얻은 입에 물고 신나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개는
강가에 다다랐어요. 그리고 통나무로 된 다리를 건너게 되었
어요. 통나무 다리를 건너다가 고기를 입에 물고 있는 다른
개 한 마리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저 녀석! 커다란 고깃덩이를 물고 있군.”
개는 다른 개가 물고 있는 고기를 빼앗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큰 고기를 물고 있는 개를 향해 크게 짖었어요.
“멍멍, 멍멍.”
개가 짖기 시작하자 입에 물고 있던 고기가 강물에 툭당
빠지고 말았어요.

〈그림 1〉 남한 교과서(2-1 나, 160-161쪽)의 연음 법칙에 관한 내용

**3 이어내기 발음에 대하여
알아보아요**

발음법

모든 사람들이 말을 하거나 글을 읽을 때 지켜
야 할 규범을 말합니다.

이어내기

꽃이—꽃이 [꼬치]
수박을—수박을 [수바글]
연필에—연필에 [연필페]

음, 알글자의 받침이 뒤에 오는 모음글
자에 그대로 이어져 발음되구나.

❖ 본문에서 이어내며 발음되는 단어를 찾아
읽어보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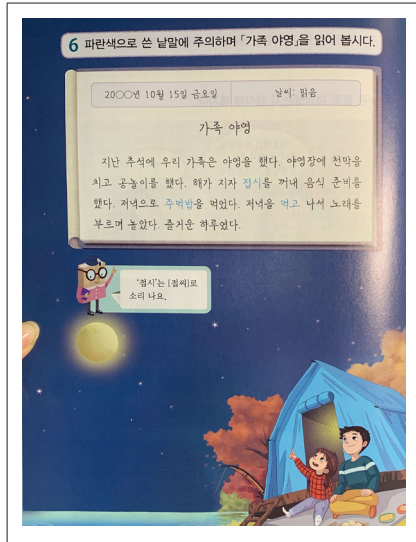
❖ 다음단어들을 읽으면서 흥받침일 때와 들받
침일 때 어떤 이어내기현상이 나타나는가
알아보세요.

국어, 문이, 굳어,
삼으로, 젓으니, 빗이,
꽃아, 끝으로, 깊은

몹이, 흙에,
흙을, 흙으며,
없어, 앓아, 짚으니

〈그림 2〉 북한 교과서(2-1, 33쪽)의 연음 법칙에 관한 내용

다음은 남한과 북한 교과서에 제시된 된소리되기에 관한 내용이다.



〈그림 3〉 남한 교과서(2-2 나, 216쪽)의 된소리발음 학습 활동

3 된소리되기 발음에 대하여 알아보지요

❖ 쓴 글자와 다르게 발음되는 글자를 찾아보지요.
학교, 알락달락, 글발, 학생, 성적증

자음 < ㄱ, ㅋ, ㆁ, ㄷ, ㅌ, ㄴ > 이
< ㄱ, ㅋ, ㆁ, ㄷ, ㅌ, ㄴ > 로 소리나누나.

이렇게 발음되는 것을 된소리되기라고 합니다.

❖ 《아름다운 우리 나라》에서 된소리로 발음되는 단어를 찾고 읽어보지요.

푸른 들에는 오곡이	푸른 하늘 높이 나는
---------------	-------------

❖ 5점의 길동무들이예요. 이름을 쓰고 읽어보세요. 된소리로 발음되는 것에 ○를 치지요.

4 본문을 류창하게 읊어보지요

❖ 끊기를 바로하며 읊어보지요.

아름다운 우리 나라/
참 좋은 나라/
산에는 금은보화/
바다엔 고기//

❖ 끊기를 자체로 표시하고 읊어보지요.

아름다운 우리 나라
참 좋은 나라
누구나 다 일하고
글 잘 배우고

넓고 푸른 들에는/
오곡이 물결치는/
아름다운 우리 나라/
참 좋은 나라///

오각별 공화국기
푸른 하늘 높이 나는
아름다운 우리 나라
참 좋은 나라

〈그림 4〉 북한 교과서(2-1, 125~126쪽)의 된소리발음 학습 활동

〈그림 1〉, 〈그림 2〉, 〈그림 3〉, 〈그림 4〉를 보면 교과서 구성 및 내용 전개 방식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음운 법칙(북한에서는 발음법)의 명칭을 제시하는 방식이 다르다. 명칭은 학습 목표에도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남한은 학습할 연음 법칙을 ‘받침이 뒷말 첫소리가 되는 낱말 바르게 읽기’로 제시하여 자연스럽게 발음법을 익히게 한다. 반면 북한은 ‘이어내기발음’이라는 명칭을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학습하게 한다.

둘째, 발음하는 단어 제시 방법의 차이이다. 남한은 ‘구름’이라는 하나의 단어를 활용하여 뒷말의 첫소리를 자음과 모음의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 환경을 자생적으로 이해하게 하는 반면 북한은 다양한 단어를 활용하여 음운 변동의 규칙을 이해시킬 뿐만 아니라 음운 변동의 표식과 발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남한은 읽기 자료나 문장을 통해 학습할 단어를 제시한다면 북한은 적용되는 단어만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된소리되기 발음을 교육할 때 남한은 텍스트를 통해 발음 시 된소리로 변동되는 낱말을 파열음 뒤나 비음이 나 유음 뒤(용언이 활용할 때 비음의 뒤에서 일어나는 된소리되기) 등 다양하게 제시하는 반면, 북한은 부사인 ‘알락달락’을 제외하고 된소리발음의 예를 제시하거나 연습 활동을 할 때 대부분 명사에 한정하고 있다.

셋째, 발음 연습 시 단어의 범위 확장의 차이이다. 연음 법칙 연습 활동 시에 남한은 ‘입에[이페]’, ‘강물에[강무레]’와 같이 단자음 중심으로 한다. 반면에 북한은 도입에서는 없었던 ‘흙에[흙게]’, ‘앉아[안자]’와 같이 겹자음도 함께 제시하고 ‘뭉이[목씨]’, ‘없어[업씨]’처럼 겹받침 ‘ㄲ’, ‘ㄷ’,¹⁴⁾ ‘ㅃ’의 경우에는 [ㅅ]을 연음하되 된소리[ㅆ]로 발음하는 낱말도 제시하여 다룬다.

넷째, 남한은 연습 활동에서 놀이를 통해 학습한 발음법을 익힌다면 북한은 다양한 예시 단어를 제시하거나 빈칸에 단어를 써 보는 활동으로 구성

14) 북한 교과서에 ‘ㄷ’에 해당하는 낱말로 ‘뚫을’ 제시하는데 ‘뚫’은 남한의 ‘돌(어린이가 태어난 날로부터 한 해가 되는 날)’을 의미한다. 남한에서는 ‘뚫’을 표준어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되어 있다.

2. 남북한 초등학교의 맞춤법 교육

1) 교육 내용 범위

북한의 소학교 문법 교육에서 ‘섞갈리기 쉬운 말의 맞춤법’은 그 교육 목적과 개념이 어디에도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북한의 언어 교육 관과 맞닿아 있는 부분으로 뜻이 같거나 비슷하여 의미적 혼동을 가져다줄 수 있는 말을 다룬 부분이다.

섞갈리기 쉬운 말의 맞춤법 교육은 어휘 규범의 하나로 규정할 수도 있다. 뜻이 같거나 비슷하여 의미는 통하겠지만 문맥과 쓰임에 따라 조화로운 에서 차이가 나면 이해의 손상을 줄 수 있기에 정확하게 어휘를 구사하는 것은 말하기 및 쓰기 영역과 관련이 있기도 하다. 따라서 북한이 섞갈리기 쉬운 말을 강조하여 교수하는 것은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해서는 말의 뜻을 가려 쓰는 것뿐만 아니라 문맥과 조화를 이루는 말을 선택하여 정확히 발음하고 표기하는 언어 규범 교육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 교과서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섞갈리기 쉬운 말’은 ‘소리가 비슷한 낱말’¹⁵⁾과, ‘자주 혼동하는 낱말’에 대한 학습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학습은 남북한 모두 2학년에서 주로 다루어지고 있지만 북한에서는 모든 학년에서 ‘섞갈리기 쉬운 말’에 대한 학습이 지속적이고 단계적으로 다루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강보선·권순희·주재우·정진석·김진숙, 2017; 권순희 외, 2018). 무엇보다 남한의 경우 소리와 표기가 다른 낱말을 학습하는 목표는 낱말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에 있을 뿐만 아니라 낱말을 바르게 읽는 학습을 위한 선수 학습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북한의 ‘섞갈리기 쉬운 말’은 단원의 내용이나 후속 학습 내용의 관련

15) 남한의 ‘한글 맞춤법 제57항’에는 ‘동음이의어’를 제시하고 있지만 북한의 ‘조선말 규범집’에는 이와 유사한 규정이 없었다.

성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남북한 교과서에 제시된 ‘소리가 비슷한 낱말’에서 학습하는 단어 중 ‘반드시’와 ‘반듯이’, ‘맞히다’와 ‘마치다’, ‘거름’과 ‘걸음’이, ‘자주 혼동하는 낱말’에서는 ‘다르다’와 ‘틀리다’, ‘작다’와 ‘적다’, ‘많다’와 ‘크다’, ‘가리키다’와 ‘가르치다’가 일부 공통적으로 다루어진 단어들이다. 그러나 북한에서 다루는 대부분의 단어는 남한의 초등학교 수준의 언어 환경에서는 납득하기 힘든 어휘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남북한의 어휘의 범위 및 구성 수준이 이질적이며 교과서에 제시된 어휘량도 일련의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은 남북한 초등학교 2학년 교과서에 제시된 ‘소리가 비슷한 낱말’과 ‘자주 혼동하는 낱말’이다.

〈표 4〉 남북한의 교과서에 제시된 맞춤법 교육의 어휘 내용¹⁶⁾

의미는 다르지만 소리가 비슷한 낱말		의미가 비슷하여 자주 혼동하는 낱말	
남한 교과서	북한 교과서	남한 교과서	북한 교과서
달히다-다치다 반드시-반듯이 식히다-시키다 거름-걸음 가치-같이 늘이다-느리다 이따가-있다가 맞히다-마치다 바치다-받치다 깊다-깊다 부치다-붙이다 갸다-갈다 맞다-말다 가치-같이 달이다-다리다 ¹⁷⁾	곳-곧 받치다-바치다 거름-걸음 반드시-반듯이 너머-넘어 비끼다-비키다 마치다-맞히다	다르다-틀리다 적다-작다 많다-크다 잊어버리다-잃어버리다 가리키다-가르치다	가르치다-가리키다 부러지다-부서지다 마시다-먹다 굽다-두껍다 가늘다-얇다 크다-많다 작다-적다 꾸준하다-부지런하다 자주-자꾸 사정없이-용서없이 환하다-흰하다 따스하다-따뜻하다 생각-궁리 들-벌 노래-음악 폭탄-포탄 속제-과제

16) 밑줄은 남북한이 공통으로 교과서에 제시한 단어이다.
17) ‘가치-같이’, ‘달이다-다리다’는 국어 활동에 제시된 낱말이다.

위 내용을 살펴보면 남북한의 맞춤법 교육 내용 어휘 범위의 차이 외에도 눈에 띄는 몇 가지 사항이 있다.

첫째, 남한 교과서에는 의미가 다르지만 소리가 비슷한 낱말을 북한에 비해 많이 제시하고 있고, 북한 교과서에는 의미가 비슷하여 자주 혼동하는 낱말을 상당수 제시하고 있다. 이로 보아 북한이 정확한 언어 표현 교육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제시된 명사의 비중 차이이다. 남한의 경우 ‘거름/결음’, ‘가치/갈이’를 제외하면 대부분 동사와 형용사 위주의 어휘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에 북한은 명사도 다루고 있다.

셋째, 본질적으로 공통성을 지닌 ‘유의어’를 맞춤법 교육에서 다룬다. 동의어를 북한에서는 ‘뜻같은말’로 명명하는데 소리는 같지 않지만 대상 논리적 개념, 즉 뜻이 같거나 비슷한 어휘를 말한다(전수태, 2009: 756). 북한에서는 ‘뜰-벌’, ‘숙제-과제’, ‘노래-음악’을 동의어로 제시하고 이러한 단어를 의식화하여 학습하게 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어휘의 풍부한 언어 표현을 위해 ‘본질적인 표지에서는 공통성을 가지면서도 다른 표지에서는 미세한 차이(전수태, 2009: 752)’를 가진 단어를 정확하게 쓸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넷째, 감정 정서적 단어인 뜻빛깔 단어도 아울러 다루고 있는 것은 어휘 교육의 일부 측면도 언어 규범에서 다루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소학교 2학년의 쉬갈리기 쉬운 말에 제시된 ‘환하다’-‘훤하다’, ‘따스하다’-‘따뜻하다’는 뜻빛깔¹⁸⁾에 해당한다. 뜻빛깔은 개념 외에 보충적으로 나타나는 의미로서 뜻이 같거나 비슷한 단어들에서 중요한 구별적 징표(전수태, 2009: 225)가 된다. 북한의 소학교에서는 뜻빛깔이 많이 등장하지 않지만¹⁹⁾ 북한의 쉬갈리

18) 뜻빛깔은 현실 세계의 대상, 현상에 대한 반영이 아니라 그에 대한 사람의 평가와 태도를 나타내는 감정 정서적 내용이다(전수태, 2009: 225).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어머님(어머니)+(높임), 엄마(어머니)+(친근감), 에미(어머니)+(얕잡음)
- 빨갈다(⟨붉다⟩+⟨밝음⟩), 빨갈다(붉다)+(어두움)

19) 뜻빛깔과 같은 단어의 감정적 의미는 초급중학교에서 더욱 강조하여 다룬다. 단어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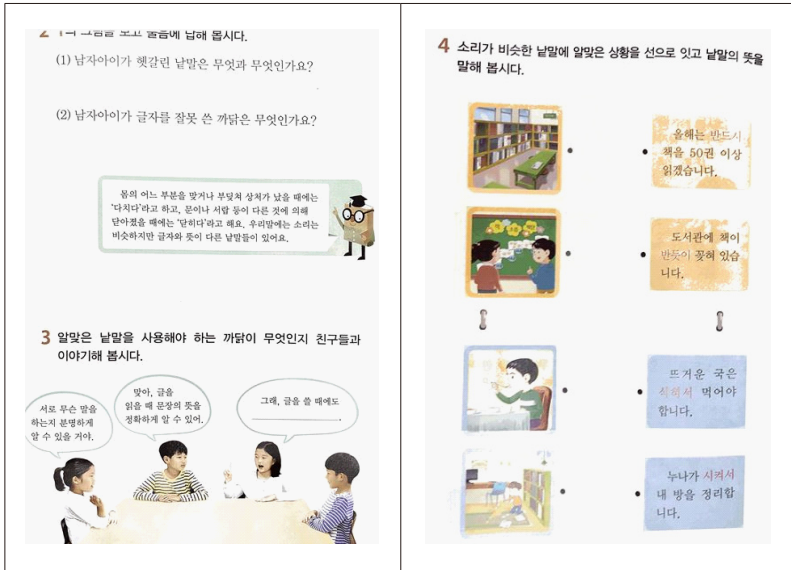
기 쉬운 말의 맞춤법은 단어가 지니는 본질적 속성뿐만 아니라 정서적 의미까지 구체적으로 다루어 문맥에 맞게 표기하도록 교육하고 있다.

2) 학습 활동

남한의 국어 교과서에서 맞춤법을 학습하는 데 5~6차시가 소용되는데 반해 북한은 1차시에 불과하다. 따라서 교과서 내용 구성에서도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남한의 경우 단원 도입 시 그림(대화)과 만화와 같은 삽화를 통해 학생들이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며 의미를 차이를 생각해 보게 하여 학습 동기를 부여한다. 이후 여러 가지 낱말이 제시된 상황에 알맞은 낱말을 쓰거나 찾아 문장을 완성하고 탐구와 놀이 활동으로 확장 학습이 이루어진다. 남한 교과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수법 중 하나로 ‘소리바꿈법’과 동일한 위상에서 설명하는데 ‘반짝-번쩍’, ‘빨강다-빨강다’와 같이 모음의 변화를 주어 단어의 사용 맥락에서 단어가 어떤 효과를 지닐 수 있는지에 대해 민감하게 교육하고 있다(권순희 외, 2018: 230)



〈그림 5〉 남한 교과서(2-1 가, 98~100쪽)의 맞춤법 학습 활동

그러나 북한 교과서에 제시된 ‘섞갈리기 쉬운 말’에 대한 학습 내용 구성 방식은 각 단원마다 상이하다. ‘읽기’ 단원에서 제시되는 ‘섞갈리기 쉬운 말’은 총 10단원에서 각 단원마다 두 쌍의 단어를 다루고 있다. ‘섞갈리기 쉬운 말’ 차시의 구성을 살펴보면 동기를 유발하는 경험이나 생각을 나누는 활동 없이 바로 학습 목표 낱말을 제시하고 아래에 예문을 제시하여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쓰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학습 목표 낱말의 뜻이 제시되는데 그림이 함께 제시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것 또한 일관적이지 않다. 북한 교과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섞갈리기 쉬운 말 제시하기

↓

- 섞갈리기 쉬운 말의 뜻 구분하기(사전적 정의 제시)
- 섞갈리기 쉬운 낱말의 의미 유사점과 차이점 찾기

↓

- 섞갈리기 쉬운 말과 같은 말 찾아보기
- 섞갈리기 쉬운 말을 문맥에 맞게 빈칸에 써 보기
- 섞갈리기 쉬운 말을 문장에서 잘못 쓰인 것 찾아 고치기

7 섞갈리기 쉬운 말을 가려주세요


꽃 문

• □안에 어느 말을 써야 할까요?
 ㄱ) 우리가 사는 □은 살구나무동네입니다.
 ㄴ) 나는 공부에 끝나면 □ 학생도서관으로 갑니다.


꽃 어느 한 장소. **문** 바로, 그대로.

가르치다 가리키다

• 그림을 보고 뜻을 세기며 □안에 맞는 단어를 쓰세요.




지식을 알게 하다.




한곳을 짚어보이다.

8 섞갈리기 쉬운 말을 가려주세요

크다 많다




사과가 크다.




사과가 많다.

작다 적다



사과가 작다.




사과가 적다.

◆ □에 <크다—많다>, <작다—적다>를 알맞게 넣어보지요.


ㄱ) 신발이 내 발보다 □ 또는 □
 ㄴ) 책장에 책이 □ 또는 □
 ㄷ) 내 키가 동무보다 □ 또는 □
 ㄹ) 내 나이가 너보다 □ 또는 □

9 섞갈리기 쉬운 말을 가려주세요

돌 별




돌판 ○
돌꽃 ○
돌놀이 ○




별판 ○
별꽃 ×
별놀이 ×

비며 념여



할머니네 집은 산 비며
에 자리잡고있습니다.



철이는 산을 념여
머니네 집으로 갑니다.

위치를 나타낼 때: □
 행동을 나타낼 때: □

〈그림 6〉 북한 교과서(2-1, 10쪽, 131쪽/2-2, 20쪽)의 맞춤법 학습 활동

‘소리와 표기가 다른 낱말’ 학습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남한의 경우 맞춤법 교육이 ‘소개하는 글’을 짧은 쓰기 활동과 연계하여 소개하는 글의 내용을 독자에게 정확하고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맞춤법에 맞게 글을 쓰도록 학습한다. 그러나 북한은 다른 기능 영역과 연계한 활동이 없고 북한은 발음과 표기의 원리를 함께 제시하고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쓰도록 하는 데 그친다.

남한은 ‘띄어 읽은 문장을 비교하기 → 띄어 읽는 방법 알기 → 띄어 읽기 표시하기’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북한은 ‘수를 나타내는 말의 띄어쓰기’와 ‘띄어쓰기의 개념과 규정’에 대해 학습한다. ‘문장 읽기 → 토가 붙은 말의 띄어쓰기 → 띄어쓰기 연습’ 순으로 학습 활동이 이루어진다.

북한 교과서에 제시된 띄어쓰기 규정은, “수사를 단위명사와 붙여 쓰며 토가 붙은 말들은 뒤에 오는 단어와 단어 너비만큼 띄여 쓰도록” 하고 있다.

4. 남북한 초등학교의 문장 부호 교육

1) 교육 내용 범위

문장 부호는 글의 뜻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문장의 이해에 도움을 주고자 사용하는 부호이다. 문장 부호는 남북한의 언어 규범에서 명칭과 부호 쓰임에 차이가 크다. 남북한의 문장 부호에 대한 성취기준을 살펴보면 남 북한이 문장 부호를 다루고 있지만 내용과 범위에는 차이가 있다. 남한은 문장의 유형에 맞게 알맞은 문장 부호를 쓰는 것을 성취기준으로 제시하는데 반해 북한은 학년별로 다루어야 하는 문장 부호를 세분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성취기준에 반영된 문장 부호는 남북한이 쓰기 영역과 연계하여 중점적으로 다룬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교육 시점은 다르다. 남한은 문장 부호에 대한 학습 내용이 2학년 과정과 연계선상에 있고 1학년에서 중점적으로 학습되는 반면 북한은 2학년부터 문장 부호가 소개된다. 또한, 남한은 2학기에 문장 부호(따옴표)의 종류와 쓰임, 문장 부호의 모양과 위치, 주의 사항을 함께 다루지만 북한은 1학기에는 글짓기교육에서 문장 부호의 쓰임 ①을, 2학기에는 글씨쓰기 교육에서 문장 부호의 쓰기 방법②을 나누어 다루고 있다.

나 북한은 ‘직접한 말’에 대한 설명은 명시하지 않고 말과 글을 직접 인용할 때 쓰는 것을 우선시하고 있다.

2) 학습 활동

교과서 학습 활동 구성 방식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남북한 교과서의 문장 부호에 대한 학습 내용 및 활동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남북한 문장 부호에 대한 학습 내용 지시문

남한	학습 내용 및 활동	북한
문장 부호의 쓰임을 알아봅시다(읽기자료「마술사」).	읽기 자료를 탐색하기	남이가 왜 그랬는지 생각해 보자요(읽기자료)
↓		
따옴표의 종류와 쓰임을 알아봅시다.	문장 부호의 종류와 쓰임 이해하기	문장 부호《》와 ?는 어느때 쓸가요?
↓		
빈칸에 알맞은 따옴표를 넣어 봅시다.	문장에 알맞은 문장 부호 (교체)쓰기	철이의 쪽지글을 바로 고쳐주자요.
↓		
	문장 부호의 쓰임에 맞게 문장 쓰기	문장 부호《》와 ?를 넣어 두 개 문장 짓기를 해보자요.

남북한 교과서에서 공통적으로 읽기 자료를 통해 학습자 스스로 학습할 내용을 생각해 보게 한다. 그리고 문장 부호에 대한 쓰임을 익히고 문장 부호를 넣어 문장의 내용을 명확하게 쓰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남한은 문장에 맞게 알맞은 문장 부호를 빈칸에 넣어보는 데 그친다면 북한은 문장 부호를 넣어 문장을 만들어 본다. 특히, 읽기 자료를 통해 학습자의 참여를 유도한 점은 기존 북한의 일방향적인 교과서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읽기 자료에 학습할 문장 부호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남한의

국어 교과서처럼 학습자가 문장 부호의 쓰임을 유추할 수는 없지만 큰 틀에서 학습 내용의 탐색 → 이해 → 적용의 측면으로 학습 과정을 구조화하고 체계화하려는 의지가 보이는 부분이다.

IV. 언어 규범 교육 내용 범위와 학습 활동에 대한 특징

북한의 언어 규범에 대한 교육 내용을 살펴본 결과 북한 소학교 2학년 국어 교과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1. 규범 지식에 대한 독자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북한의 조선말규범집은 남한과 달리 ‘띄어쓰기’와 ‘문장 부호법’을 독립 규범으로 규정하여 남한보다 세부적으로 다루고 있다. 남한의 띄어쓰기는 한글맞춤법에 속해 있고 문장부호는 북한의 문장부호법처럼 독자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위상이 다르다. 이처럼 남북의 띄어쓰기와 문장 부호에 대한 지위 차이는 남북한의 규범 교육에 대한 학년별, 내용별 범위와 수준의 차이와도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북한은 남한과 달리 띄어쓰기의 성취기준이 마련되어 있고 문장 부호의 경우 남한은 1~2학년에서만 다루고 있다면 북한은 학년별로 세분화하여 교육되고 있다.

따라서 통일 시대를 대비하여 상이한 남북의 어문 규범에 대한 위상을 정립하고 남북한의 규범 지식에 대한 교육을 체계화하여 교과서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2. 규범 지식에 대한 수동적 수용 강조

언어 규범 교육은 규범 지식에 대한 개념과 원리적 속성을 명시적으로 교수하되 학습자가 스스로 개념과 원리를 구조화하고 생각을 펼칠 수 있는 능동적인 탐구 활동이 필요하다. 가령, 남한은 발음 교육에서 발음의 원리를 제시하거나 구체적인 설명을 하기보다는 단어, 문장, 담화에 제시된 다양한 낱말을 통해 소리와 표기의 차이를 이해하도록 구성하고 있다. 발음의 원리를 ‘교수’하기보다 다양한 낱말을 통해 원리를 스스로 터득하게 하는 실재를 중시하는 것이다.

반면, 북한의 교과서에 제시된 언어 규범 내용은 규범 지식에 대한 개념과 원리 이해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언어 규범에 대한 맥락적 사용에 초점을 둔 교수보다 기계적인 연습 활동을 통해 학습 목표를 실현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언어 교육관, 정확한 언어 습득을 통해 올바른 언어 사용을 실천하려는 목표와 무관하지 않다. 북한의 기초원리지식은 문법적 지식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학습자의 언어 및 인지 수준과 규범 지식 교육 범위를 조정하는 데에 있어 면밀하지 않다.

3. 규범 지식에 대한 광범위한 교육 내용 범위

북한의 소학교 교과서에는 교육 강령의 성취기준이 반영된 규범 지식 내용의 관련성이 명확하다. 그러나 학습자의 인지와 학령에 맞는 언어 능력, 규범 지식의 난이도 고려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발음법과 맞춤법 교육의 광범위하고 모호한 교육 내용의 선정과 위계화는 학습자가 언어 규범 지식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체득되는 데 한계로 남을 수 있다.

또한, 일부 언어 규범은 교육 내용 구성, 학습 도입 시기와 단계에서 남한과 간격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간극은 남북 학습자의 언어 지식의 활용과 경험의 이질화가 더욱 커지는 요인이 될 수 있어 이는 통일 대비 교

과서를 구안할 때 분명히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향후 통일 대비 교과서에서는 남북 학습자의 언어 능력뿐만 아니라 메타언어 능력을 고려한 점진적인 언어 규범의 교육 내용 체계가 구안되어야 할 것이다.

4. 실제성을 반영한 과제 수행 활동 부족

언어 규범 교육은 규범 지식의 내면화를 위해 실제 언어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학습 내용과 유기적이고 관련성이 긴밀한 활동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북한 교과서의 언어 규범 교육은 규범 지식 습득에 초점을 두어 다양하고 유의적인 학습 활동이 결여되어 있다. 또한 국어사용 능력을 강조하여 단편적이고 기계적인 규칙성에 기반한 학습 활동으로 단순히 학습 이해 정도를 확인하는 데 집중하였다.

실제적 학습 활동은 언어생활의 실제 목적과 부합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언어 규범 지식 습득은 문화적 소양과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데 교육적 가치가 크지만 북한 소학교 교과서의 내용의 구성 체계만 보았을 때 교사와 학습자, 학습자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학습 활동은 미비하여 학습자 스스로 적용, 심화하기보다 교사의 일방향적인 교수 방식을 가늠하게 한다. 발음 교육의 경우 음운 변동 현상의 원리부터 그 작용의 원인, 다양한 단어 예시를 제시하고 이를 도표로 제시하여 이해를 돕도록 교수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김용환, 연도미상; 고영근, 2008: 17 재인용). 그러나 학습자의 발달단계 특성을 고려한 시각적 인지 교육에는 한계가 있고 남한의 다양한 매체 문식 환경과 견주어 봤을 때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따라서 교과서 본문 내용에 의존하기보다 다양한 텍스트를 통해 규범 지식을 적용해 볼 수 있도록 지식과 학습 활동의 균형성을 갖춘 과제 수행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V. 나오기

본 연구는 남북한 초등학교 2학년 국어 교과서의 발음법을 포함한 언어 규범의 전반적인 내용을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언어 규범은 남북한 언어에서 통일 이후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가장 이질적인 부분이지만 올바른 언어 규범에 대한 이해는 언어 영역(말하기·듣기, 읽기, 쓰기)의 기초가 되고 정확하고 유창한 언어 사용에 기반이 된다.

지금까지 국어학적인 관점에서 남북한 언어 규범의 비교는 다수 논의되었으나 국어교육적 관점에서 언어 규범 교육의 논의는 미비하였다. 남북한 교과서 분석 연구가 부족한 가운데 언어 규범 교육을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의미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북한의 국어 교과서에 등장하는 발음법 및 맞춤법, 띄어쓰기, 문장 부호와 같은 언어 규범을 남한의 교과서와 비교하여 남북한 교과서 통합 방안의 기초연구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남북한 초등학교 2학년 국어 교과서에서 띄어쓰기를 제외한 발음법, 맞춤법, 문장 부호를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었다. 성취기준에 따라 학년마다 다루는 범위와 내용 구성, 학습 활동 방법에도 차이가 있었다. 남북한이 초등학교생의 언어발달 능력 및 인지 수준에 대한 고려가 달라 통일 후에는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통일 대비 교과서 구안 시 남북한의 언어 규범의 성급한 통일보다 남북한의 언어 규범에 대한 차이를 인식하고 수용과 이해를 기반한 통합적 언어 규범 교육의 실현이 필요하다.

발음법은 자연스럽고 유창한 의사소통을 위한 필수적인 교육이다. 남북한의 통합된 표준발음법이 우선 마련되어야 하겠지만 초등학교 교육에서 학년별로 다루어야 하는 발음법의 내용 및 교수 범위 등이 상이하여 학습 목적과 목표를 염두에 둔 성취기준 및 교과서 내용이 마련되어야 한다.

맞춤법 교육은 남북한이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고 발음과 표기관계의 중

요성을 고려하고 있었다. 다만 남한은 2학년 교과서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북한은 2학년뿐만 아니라 학년이 올라가더라도 지속적으로 맞춤법 교육을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남북한 교과서의 맞춤법 교육에 필요한 어휘 수준도 상이하다. 따라서 맞춤법 교육은 중요한 언어 규범인 만큼 학령에 맞는 표준적인 어휘 수준을 체계화하여 지속적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띄어쓰기 교육은 북한에서만 다루는 규범 교육이다. 남북한의 띄어쓰기 규정은 복잡하고 이를 일일이 교육하기보다 학년에 맞는 학습자의 인지 수준을 고려하여 다양한 읽기 방법을 통해 띄어 읽고 자연스럽게 띄어쓰기를 터득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문장 부호 교육은 필자의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데 필요한 쓰기 규범 교육의 하나이다. 무엇보다 남북한 문장 부호의 명칭과 용법이 달라 문장 부호의 통합안이 우선이겠지만 남북한의 상이한 문장 부호를 상호 이해하고 차근히 문장 부호의 명칭과 용법을 터득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본다.

통일 후 국어교육은 남북한의 학습자들이 이질적인 언어로 인한 혼돈으로 갈등을 겪기보다 상호 이해를 통해 언어 능력을 키우도록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남북한의 실증적 언어 연구가 더욱 풍성해져 통일이 되었을 때 빠른 시일 내 통합된 국어 교육과정과 교과서 구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 본 논문은 2019.4.30. 투고되었으며, 2019.5.1. 심사가 시작되어 2019.6.6. 심사가 종료되었음.

참고문헌

1. 자료

- 교육부(2017), 『초등학교 국어 1-2(가)』, 세종: 교육부.
교육부(2017), 『초등학교 국어 2-1(가)』, 세종: 교육부.
교육부(2017), 『초등학교 국어 2-1(나)』, 세종: 교육부.
교육부(2017), 『초등학교 국어 2-2(가)』, 세종: 교육부.
교육부(2017), 『초등학교 국어 2-2(나)』, 세종: 교육부.
교육위원회(2013), 『제1차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강령(소학교)』, 평양: 교육위원회.
리수향·하정순·성순옥·송일녀·염정실·김성옥·박은하·리은희(2014), 『국어 소학교 2-1』,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리수향·하정순·성순옥·송일녀·염정실·김성옥·박은하·리은희(2014), 『국어 소학교 2-2』,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우인철·리혜란·최은향·한송이·윤향미·박연옥(2013), 『국어교수참고서 초급중학교 1학년』,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2. 논저

- 강보선(2013), 「북한 소학교 국어 교과서에 나타난 북한의 언어문화 연구」, 『화법연구』 22,
259-284.
강보선(2017), 「남북한 통합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북한의 어휘교육 내용 고찰」, 『문법교육』 31,
181-212.
강보선(2018), 「북한 초급중학교의 학교문법 내용 분석」, 『국어교육』 161, 119-157.
강보선·권순희·주재우·정진석·김진숙(2017), 「남북한 초등학교 문법교육 내용 비교」, 『우리
말글』 72, 31-65.
고영근(2008), 『북한의 문법 연구와 문법 지식의 응용화』, 서울: 한국문화사.
교육부(2015),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세종: 교육부.
국립국어원(2018),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해설, 서울: 국립국어원.
권순희(2018), 「2013년 개정 북한 국어 교과서 분석」, 『국어교육학연구』 53(3), 5-47.
권순희·주재우·김윤정·변경가·정경화(2018), 『통일 시대를 대비한 남북한 국어 교육과정 및
교과서 비교 분석 연구』, 서울: 천재교육.
김서형(2018), 「남·북한 초등 국어 교과서에 나타난 지시문의 문장 종결형 연구」, 『코기토』 86,
169-193.
김용환(연도 미상), 「단어의 발음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원리적으로 가르치려면」, 『문』 95(4), 쪽
수 미상.

- 박금숙(2016), 「남북한 초등 국어교과서 수록 전래동화 비교 연구」, 『동화와 번역』 31, 83-108.
- 박종관(2016), 「남북한 맞춤법의 비교·분석을 통한 맞춤법 교수·학습 내용 연구」, 『국어국문학』 175, 5-30.
- 변경아·권순희(2019), 「북한 고급중학교 『국어문학』에 수록된 제재 양상 및 특징 —김정은 시대의 2013 교육강령 및 교과서를 대상으로—」, 『우리말연구』 56, 211-239.
- 북한 국어사정위원회(2010), 『조선말규범집 (2판)』, 평양: 북한 국어사정위원회.
- 북한 국어사정위원회(2016), 조선말규범집, 검색일자 2019. 6., 사이트 주소 [https://ko.wikisource.org/wiki/%EC%A1%B0%EC%84%A0%EB%A7%90_%EA%B7%9C%EB%B2%94%EC%A7%91_\(2016\)/%EC%A1%B0%EC%84%A0%EB%A7%90_%EB%A7%9E%EC%B6%A4%EB%B2%95](https://ko.wikisource.org/wiki/%EC%A1%B0%EC%84%A0%EB%A7%90_%EA%B7%9C%EB%B2%94%EC%A7%91_(2016)/%EC%A1%B0%EC%84%A0%EB%A7%90_%EB%A7%9E%EC%B6%A4%EB%B2%95).
- 사회과학출판사(2006), 『조선말대사전(증보판)』,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 이관규(2016), 남북한 어문 정책의 동질성 회복 방안에 대한 연구, 『국어국문학』 176, 63-90.
- 이기동(2011), 「북한의 말소리연구에 대한 고찰」, 『한국학연구』, 38, 209-233.
- 이동배(2009), 「해방 후 시기의 남북한 초등국어 교과서 비교연구」, 『새국어교육』 83, 337-356.
- 이정원(2007), 『북한 소학교 국어교과서에 나타난 정치사상교육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수태(2009), 『북한의 국어 의미론』, 서울: 대한교육문화신문 출판부.
- 주재우(2018), 「김정은시대의 북한 초급중학교 국어교과서 분석」, 『독서연구』 48, 133-163.
- 진용성·차해나(2018), 「북한 소학교 1학년 국어교과서(2013)와 남한 초등학교 1학년 국어교과서(2017)의 비교 연구」, 『청람어문교육』 66, 59-83.
- 홍경화(2014), 「남북한 언어'관련 내용의 국어 교과서 구현 양상의 문제점」, 『우리말글』 62, 159-186.

북한 소학교 2학년 국어 교과서에 나타난 언어 규범 교육 내용 분석 — 남북 비교를 중심으로

정경화·권순희

본 연구는 남북한 초등학교 2학년 국어 교과서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언어 규범에 해당하는 발음법, 맞춤법, 띄어쓰기, 문장 부호 교육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북한의 교육강령에서는 기초원리 지식교육이라 하여 문법 교육 내용을 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교과서에서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영역(글 짓기, 글자쓰기)에 제시하고 있고 언어 규범은 듣기를 제외한 다른 영역에서 다루고 있다. 주로 읽기 영역에서 문법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말하기, 쓰기 영역에서도 문법 지식을 일부 포함하고 있다.

남북한의 초등학교 2학년 교과서에 다룬 공통된 발음법은 연음 법칙과 된소리되기이다. 맞춤법은 소리가 비슷한 낱말과 자주 혼동하는 낱말, ‘소리와 표기가 다른 단어’를 중심으로 제시되어 있었다. 띄어쓰기와 문장 부호는 쓰기 교육에서 다루는 규범 교육이다. 남한에는 띄어쓰기를 교육하지 않는 대신 띄어 읽기를 교육하고 문장 부호는 남북한의 문장 부호의 종류와 용법의 차이가 있었다. 남북한이 초등학교생의 인지 수준에 대한 고려가 달라 통일 후에는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핵심어 북한 교과서, 초등학교, 문법 교육, 언어 규범

An Analysis of the Contents of the Language Norm Education in the Korean Language Textbook of the Second Grade Elementary School in North Korea

— Focused on the Comparis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Jung Kyungwha · Kwon Soonhee

This study focuses on pronunciation, spelling, spacing, and punctuation, which are common in Korean language textbooks of elementary school in North and South Korea. The pronunciation, spelling, and punctuation marks except for spacing are commonly used by the two Koreas in the second grade of elementary school. According to the achievement standards,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scope, content composition, and learning activity of each grade level.

In North Korea's educational program, basic principles and knowledge education are presented separately. In textbooks, however, they are presented in listening, speaking, reading and writing areas, and language norms are covered in all areas except listening. It mainly deals with the grammatical content in the reading area, and also includes some grammatical knowledge in the speaking and writing areas.

The common pronunciation method in the textbooks of elementary school in North and South Korea is prolonged sound rule and Glottalization. The spelling was presented with words that are often confused with words with similar sounds, and 'words with different sounds and notations'. The spacing and punctuation marks are the norms of instruction in writing education. In South Korea, there was a difference in handling reading education instead of spacing. The punctuation marks differed between the types of punctuation marks used in North and South Korea.

According to the accomplishment standards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scope, content structure, and

method of learning activities of each grade in the textbooks. There is a need to discuss this issue after the unification because the consideration of the cognitive level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South and North Korea is different.

KEYWORDS North Korea Textbooks, Elementary School, Grammar Education, Language Norm Education